전남 전역 순회 마친 이재명… '애정·배려' 두드러졌다

9개 국회의원 지역구 방문
경청투어·집중유세 등 진행
대선 후보 이례적 행보 눈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이후 경청 투어와 유세 등을 통해 전남 국회의원 지역구 10곳 중 9곳을 찾아 도민들과 얼굴을 맞댔다.

전국이 '단일 선거구'인 대선에서 후보가 광역단체의 모든 지역구를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후보의 적극적 전남 방문은 극히 이례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심장인 전남에 대한 이 후보의 애정과 배려가 깔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예비후보 기간인 지난 11일 '골목골목 경청 투어 : 남도문화벨트편' 일정 소화를 위해 화순·강진·해남·영암을 방문했다.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지난 15일에는 광양·여수·순천·목포에 이어 17일 오전 나주시를 찾았다.

경청투어 일정으로 방문한 군단위 지역을 보면 화순은 신정훈(나주·화순), 강진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영암은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지역구다.

지난 15일 찾은 광양은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여수 주철현(여수갑)·조계원(여수을), 순천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목포는 김원이 의원 지역구로, 이 후보가 방문한 9개 시군은 전남 의원 9명의 지역구에 포함된다.

민주당은 전남도당과 협의해 당초 경청 투어 일정에 들어갔던 담양과 장흥을 제외하고, 영암과 강진으로 변경했다.

담양은 방문 장소가 관광지인 '프로방스'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지인 탓에 담양 군민보다 관광객이 많은 것이란 판단과 함께 관광지 유세를 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장흥이 방문 장소로 추천된 이유는 '토요시장'이 부각됐지만, 일정이 일요일로 변경되면서 지역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강진으로 수정됐다.

이 후보가 방문한 9개 시군중에서 4개군은 경청 투어 일정, 3개시는 유세, 2개시는 집중유세가 진행됐다.

집중유세가 진행된 여수시와 목포시에서는 중앙유세단이 참여해 이 후보 도착 전에 흥을 돋았다.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 지역구인 여수에선 6,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이 후보 연설을 경청했다.

이 후보는 여수 집중유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며 "정말로 이 비에 이렇게 와주셨으니, 제가 여러분의 그 간절함과 그 절실함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국을 다녀야 할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광역단체 전 지역구를 방문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며 "이 대표가 전남 지역구 10곳 중 9곳을 방문한 그만큼 전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왼쪽) 여사가 21일 목포시 공생원을 찾아 윤학자 선생의 동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경 여사, 세월호·복지시설 찾아 민심잡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21일 목포를 찾아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세월호 선체가 안치된 목포 신항을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묵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일정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목포 신항을 찾아 세월호 선체를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세월호가 임시 안치돼 부식되고 있어서 하루빨리 생명과 안전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치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여사는 사회복지법인인 공생원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공생원을 설립한 윤치호 선생과 윤학자 여사의 기념비를 보며 정애라 공생원 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공생원은 1928년 고 윤치호 전도사가 고아들을 위해 설립한 목포 생원이 모태다. 6·25 전쟁 중 윤 전도사가 실종되면서 그와 결혼한 일본여성 다우치 치즈코(1912~1968·한국명 윤학자) 여사가 공생원을 이끌었다. 정근산 기자

전세계 118개국 25만여명 대선 재외투표 시작

25일까지 '소중한 한 표' 행사
유권자 20대보다 14.2% 늘어

내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20일(지역별 현지시간 기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 세계 곳곳에서 시작됐다.

이번 대선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오는 25일까지 엿새간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재외투표 유권자 수는 총 25만8,254명으로, 지난 20대 대선 때보다 14.2% 늘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12만8,932명(49.9%)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주 7만5,607명(29.3%), 유럽 4만3,906명(17.0%) 등의 순이다.

날짜변경선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투표가 시작된 뉴질랜드에서는 한인 예비 대학생 김현서씨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이번 대선의 첫 투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뉴질랜드에 이어 재외유권자가 특히 많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투표가 잇달아 개시됐다.

일본에서는 도쿄 미나토구 민단 중앙회관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를 비롯해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 삿포로, 센다이, 후쿠오카 등지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주중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상하이·선양·시안·우한·청두·칭다오·홍콩 총영사관과 다롄 출장소 등 모두 10곳에 투표소가 마련됐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역대 최다인 1만6,693명이 투표를 위해 국외 부재자 신고를 했다.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재외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선부터는 지난해 신설된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룩셈부르크 공관에도 투표소가 마련돼 유권자들이 몇 시간씩 주변 국가의 투표소로 이동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주러시아대사관도 재외선거가 개시된 직후 차분한 분위기에서 많은 교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프리카와 중동의 한국대사관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수도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등지의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시작됐다.

이 가운데 1만341명의 유권자가 등록한 LA총영사관 재외투표소는 이날 오전 8시 문을 열자마자 유권자들의 발길이 잇따르면서 입구가 북적였다. 연합뉴스

'새집론' 국민의힘, 이준석에 연일 단일화 구애

"큰 틀에서 함께 기대"

국민의힘은 21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구애의 손짓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에게 "우리는 결국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제안하며 "보수 본가가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단일화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이 후보에게 쇄신 의지를 밝히며 재차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이 후보와 조우하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묻는 말에 "아직 언론에 공개할 정도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선 후보) TV토론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후보가 말하는 가치나 공약이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가치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많은 국민이 인정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계엄과 독재에 반대한다는 큰 틀에서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선거 레이스가 진행 중이니 지켜봐 주면 좋겠다. 저도, 이 후보도 큰 틀에서 여러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단일화 성사의 '마지노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표용지 인쇄(25일 시작) 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별도의 시한을 두지 않은 채 선거 직전까지라도 단일화 성사에 방점을 두고 설득 작업을 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의 가천대 학생 식당 방문 행사 현장을 직접 찾아 이 후보 설득에 나섰다.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 후보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며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다만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러브콜에 거듭 선을 긋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어떤 논의의 방향을 가져갈지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